

國語親族呼稱語의 通時的 考察(Ⅲ-2)

—〔伯·叔父〕, 〔伯·叔母〕 呼稱語를 中心으로—

趙 恒 範*

I

필자는 拙稿(1987b)에서 後期中世國語 이후 近代國語前伴期(17c~18c)에 이르는 사이에 존재했던 〔伯·叔父〕, 〔伯·叔母〕 관련 호칭어에 대해 그 역사적 변천과정과 변모 양상을 밝힌 바 있다. 본고는 바로 이것의 후속편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 다루지 못한 近代國語 후반기 이후의 〔伯·叔父〕, 〔伯·叔母〕 호칭어에 주목한 것이다. 결국 앞의 논문과 본고가 묶여져야 완성된 모습을 갖추는 셈이다.

近代國語의 後期(정확히 19세기)에 들어서면 〔伯·叔父〕, 〔伯·叔母〕의 呼稱體系에 특징적인 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전의 호칭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의 변모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제 변화의 모습은 ‘아자바니, 아자마니’의 등장과 이것의 意味變化, 새로운 호칭어 ‘아자씨, 아재, 큰아바지, 작은아바지, 큰어마니, 작은어마니’의 출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아자바니, 아자마니’의 복잡한 의미변화는 특히 주목되는 현상이다.

먼저, 〔伯·叔父〕의 호칭어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a. 그 아즈비 강권하여 디부 유종간의 쫘과 혼인하니(其叔強爲娶朱從簡大夫女) <太上四 31>
b. 아즈비(叔) A low form for 아즈버니 <한영 p.15>
- (2) 아지 A name given by sons or their wives to those of the father's

* 박사과정

generation who have the same clan character-uncle etc. A name given by wives to those of the husband's generation who have same clan character. See **아주비** <한영 p.15>

- (3) a. **아자씨** 叔父. S'emploie pour une foule de parents proches: oncle, frère cadet du père, frère de la mère, etc, cousin <한불 p.11>
 b. **아자씨** 叔主, 父之兄弟 <國漢 p.564>
 c. **아주씨** 叔父, An honorific form **아찌** <한영 p.15>
- (4) a. **아자버니** 叔父. Même sens: être parent. Pour les hommes: oncle, frère du père ou de la mère, beau-frère, cousin du père <한불 p.11>
 b. **아즈바님**, **아자비**, **아즈바니** <노한 p.161>
 c. **아주버니** An. honorific form **아찌** <한영 p.15>
- (5) a. **큰아버지** A paternal uncle-older than the father <한영 p.298>
 b. **작은아버지** A father's younger brother <한영 p.712>

이상 제시한 ‘아자비, 아재, 아자씨, 아자바니, 아자바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¹⁾ 등이 당시에 [伯·叔父]를 뜻할 수 있었던 固有語 呼稱語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호칭어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後期中世國語의 ‘아자바’의 後代形態는 보이지 않는다.²⁾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었던 호칭어라 하더라도 意味價值面에서는 온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후기중세국어라면 [伯·叔父]의 호칭체계는 ‘아자비, 아자바님’이 平稱과 尊稱을 이루고 있던 단순한 체계였지만 이 시기는 平칭과 존칭만의 二元體系였다고 말할 수 없을 듯하다. 그것은 이전의 平칭이었던 ‘아자비’가 그 이하로 意味價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尊稱의 ‘아자바님’의 異形態 ‘아자바니’의 자리매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앞의 例文 (1) b는 ‘아자비’가 ‘아자바니’보다 한 단계 하위의 의미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例文 (4)a는 ‘아자버니’에 존칭의 자질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이

- 1)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구성소 ‘아버지’는 [父]의 직접면접호칭 ‘아바’에 접미사가 연결된 것이므로 [伯·叔父]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원래의 형태이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拙稿(1987a) 참조.
 2) 지금 이것의 잔존형태로는 지역방언형태 ‘아자배’ <소면 지역의 한국어 방언>, ‘아지배’ <경남, 강원> 정도가 있을 뿐이다.

것이 존칭의 ‘아자바님’ 보다는 下位의 의미가치를 띠고 있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아자바니’의 경우, 존칭형으로 ‘—님’ 첨가형 존칭형 ‘아자바님’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의 존칭형과의 有緣性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존칭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존칭의 자질을 얼마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존칭형 ‘아자바님’과 동등한 의미가치를 띠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을 것이 당연할 듯하다. 즉 ‘아자바님’과 ‘아자바니’는 서로 다른 의미가치로 兩立했다는 것이다. 이 때 ‘아자바님’이 존칭인 이상 ‘아자바니’는 그 아래인 평칭 내지 평칭 이상의 의미가치를 띠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아자바니’의 의미가치를 평칭 정도로 이해하는 다른 이유는 單語構成에 있어 [父]의 평칭으로 인식되던 ‘아바니’를 포함하고 있어서이다. 물론 ‘아자바니’가 ‘앗—’에 평칭화된 [父]의 ‘아바니’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자바님’에서 末音 ‘口’이 탈락된 것이지만 일부의 外形的 形態가 ‘아바니’와 같아짐으로써 이것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자바니’의 意味價値가 평칭 이상이었던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면 의미가치상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기술된 ‘아자비’의 그것은 자연히 평칭 이하, 비칭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아자비’의 價値移動에는 ‘아자바니’의 平稱으로의 자리가동이 한 動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은 ‘아자바니’가 평칭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평칭인 ‘아자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 ‘아자비’의 의미가치가 평칭에서 점차 한 단계 아래인 비칭으로 下向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⁴⁾ 이러한 현상은 [父], [母]의 ‘아비, 어미’가 ‘아바니, 아바지’, ‘어마니’의 ‘尊稱→平稱’에 따른 構造的 압력에 의해 ‘平稱→卑稱’으로 의미가치가 변동된 것과 平行的이다.⁵⁾ ‘아자비’의 압력자로는 ‘아자바니’ 말고도 ‘아자바니’와 같은 의미기능을 보이던 ‘아자씨’도 첨

3) ‘아바니’에 대해서는 拙稿(1987a) 참조. 이 ‘아바니’의 첫 용례는 19세기에 보인다. 이것은 20세기초의 신소설에서도 드물게 확인된다.

例: 여보 장손 아버지…… 〈힝낙도 p.97〉

죽을 줄 알던 쇠아바니를 의외에 초겨는지라 〈츄월식 p.100〉

4) 물론 ‘아자비’ 비칭화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관 계지시호칭인 한자어의 득세도 무시 못할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이에 대해서는 拙稿(1987a) 참조.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자비’의 비칭화를 조장한 다른 측면의 요인으로 ‘아자비’의 구성소 ‘아비’의 비칭화를 빼놓을 수 없을 듯하다. 어떤 단어의 변화는 그 영향력을 필연적으로 관련된 단어에 행사한다는 점에서 ‘아비’의 비칭화가 이것을 포함한 ‘아자비’의 비칭화에 일조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가능하다. 결국 ‘아자비’의 의미가치 하락은 體制內的 構造的 압력에 ‘아비’의 비칭화가 가세되어 쉽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20세기 이후의 ‘아자비’의 소극적 동장은 이 비칭화와 관계 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칭화된 호칭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호칭어로서의 적절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아자비’의 의 비칭화는 <조선말큰사전>(1947)에 오면 분명히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 標題語를 ‘아주비’로 잡아 15세기 이후의 ‘아자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아저씨의 낮춤말] ② [아주머니의 낮춤말]로 비교적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이 사전의 시작이 20세기 초라는 사실과 사전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이것의 비칭화를 20세기 이전까지 소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사전의 의미해석은 대체로 <조선말큰사전>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제어도 이것을 따라 ‘아주비’로 고정하고 있다.

이렇듯 19세기말에 ‘아자비’가 평칭이하 비칭이고 ‘아자바니’가 평칭 또는 존칭 이하라면 이때의 [伯·叔父]의 호칭체계는 적어도 後期中世國語나 近代國語 전반기와는 달라진다. 근대국어의 어느 시기까지 平稱：尊稱의 二重體制를 유지하다 卑稱이 달리 마련되면서 卑稱：平稱：尊稱의 三重的 體制가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三元體制로의 변모를 ‘아자바님’의 異形態 ‘아자바니’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아자비’의 비칭화의 한 원인을 [父], [母]의 ‘아비, 어미’의 비칭화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이것의 쇠퇴 원인을 이 비칭화에 두었다.

어떤 이유로든 ‘아자비’가 單語勢力을 잃었다고 할 때, 이것은 [伯·叔父]의 意味綱에는 ‘아자비’를 대신할 대체단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자비’의 대체단어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19세기에 등장하는 ‘아재’가 아

니었을까 한다. 우선 ‘아재’의 語構成만 살펴 보아도 ‘아자비’와의 관련성이 드러난다. ‘아재’를 평면적으로 분석할 때 ‘아자 + 1’⁶⁾로 되어 先行素 ‘아자’는 바로 ‘아자비’의 ‘아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아재’의 ‘아자’가 ‘아자비’의 그것이라면 이것은 誤分析된 語根이 된다. 이 ‘아자’의 語根으로서의 誤認은 접미사 연결이 자유로운 [父], [母]의 ‘아바, 어마’에 이끌린 오류로 생각된다. ‘아바, 어마’가 ‘아바지, 아바씨, 어마씨, 아배, 어매’ 등에서 보듯 파생어 생성력이 강하고 이들의 末音이 ‘아’로 끝난다는 점 때문에 이것에 이끌려 우연히 ‘아’음을 지니고 삼음절인 ‘아자비’를 파생어로 잘못 보아 이것의 ‘아자’를 語根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아자’를 이용하여 ‘아바 + 1’, ‘어마 + 1’로 분석되는 [父], [母]의 ‘아배, 어매’에 유추되어 생성된 것이 바로 ‘아재’인 것이다. 이 ‘아재’가 造語되었다고 추정되는 19세기말은 造語論的 측면에서 그 규칙성이 무시되는 혼란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던 시기여서 이러한 비체계적인 造語形態의 출현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닌 듯싶다.

‘아자’의 語根化는 後述할 ‘아자씨’에 의해 보다 명확히 증명된다. 이것도 다름 아닌 ‘아자’를 語根으로 하는 ‘아자+씨’의 구성에⁷⁾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북의 斑村地域에서 쓰이는 ‘아지아(아즈>아즈>아지+아)’ 또한 ‘아자’의 語根化를 보이는 한 예로 추가될 수 있다.

‘아재’는 그 의미에 있어 ‘아자비’의 그것과 비슷하여 형태뿐만 아니라 意味面으로도 ‘아자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앞의 例文 (2)는 ‘아재’의 호칭대상과 호칭자의 범위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 주고 있는데 이전의 ‘아자비’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한다면 ‘아재’의 호칭대상은 삼촌을 포함하는 아버지 항렬의 남자 친족, 남

6) ‘아재’에 대해 崔昌烈(1986 : 134)에서는 ‘아자비’의 異形態 ‘아재비’의 준말로 보고 있으나 말음절이 탈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재비’가 줄어들더라도 ‘아재’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이러한 용례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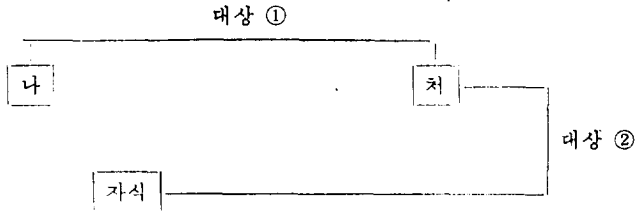
例 : 한 집안에 아재 족하 두 아히를 한 글방에 공부를 안식이니 <힉낙도 p. 35>

7) ‘아자씨’에 대한 형태분석의 최근의 것으로 崔昌烈(1986 : 135)의 ‘앗[小]+압[父]+씨(존칭)’가 있다. 이 분석법은 필자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편 항렬의 시대 친족이며, 호칭자는 전자의 경우 호칭대상의 조카와 조카며느리, 후자의 경우는 호칭대상의 兄嫂나 弟嫂가 된다. 호칭자를 ‘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나, 나의 처, 나의 어머니’가 된다.

호칭자가 조카며느리(나의 처)인 경우 남편(나)의 [伯·叔父]를 남편과 동일한 호칭어를 쓰면서 남편의 [兄弟]에 대해서는 남편의 이들에 대한 호칭어 아닌 남편의 [伯·叔父]와 동일한 호칭어를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일견 남편의 [伯·叔父]의 호칭어를 남편의 것을 따르다면 남편의 [兄弟]의 호칭어도 남편의 호칭어를 따라야 할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남편의 호칭어에 기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남편의 [伯·叔父]에 대한 호칭어를 代用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남편의 [伯·叔父]는 남편의 이들에 대한 호칭어를 그대로 쓴 것이지만 남편의 형제에 대한 호칭어는 남편 아닌 다른 인물의 호칭어를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그 인물은 호칭자의 ‘자식’으로 보인다. 즉, ‘자식’에게 [伯·叔父]가 ‘아재’이기에 ‘나의 처’, 달리 말하면 ‘자식의 어머니’의 [자식의 伯·叔父] (媳淑)에 대한 호칭어가 ‘아재’가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집온 여자는 새로운 친족원인 [남편의 伯·叔父]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兄弟]는 자식을 통해서 바라본 결과 해당 인물에 기존의 남편과 자식의 호칭어를 代用했다고 결론된다. 남편의 [伯·叔父]는 남편으로 보았을 때 [伯·叔父]이며 [남편의 형제]는 자식으로 보았을 때 [伯·叔父]이므로 동일 관계의 친족원에 같은 호칭어가 배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시집온 ‘나의 처’가 남편과 자식을 기준하여 그들의 호칭어를 빌려쓴 것만이 다르다.

이들 관계를 다른 호칭어와 관련해서 다음의 그림을 통해 다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즉, ‘나’의 대상①에 대한 호칭어는 ‘처’의 대상①에 대한 호칭어와 동일하고 ‘자식’의 대상②에 대한 호칭어는 ‘처’의 대상②에 대한 호칭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의 ①②에 대한 호칭어는 ‘나’와 ‘자식’의 ①과 ②에 대한 호칭어와는 달리 ‘식>시’를 첨가하여 구별하기도 하는데 ‘시아자비>시아자비, 식아자바님>시아자바님, 식아자바니>시아자바니’ 등이 그들이다.⁸⁾ 이렇게 기존의 호칭어에 ‘식>시’를 첨가하여 구분한 것은 혈연적으로 무관한 시가쪽 친족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식>시’ 첨가형 호칭어는 ‘식>시’가 주는 異質的 意味 때문에 직접면접호칭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관계지시호칭으로만 기능하는 제약이 있다. 現代國語에서는 대상①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님, 큰아버님, 叔父님, 伯父님’으로 불리어 ‘나’와 ‘처’의 호칭어가 동일하나⁹⁾ 대상②의 경우 ‘자식’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叔父님, 伯父님, 삼촌’ 등이라 부르고 ‘처’는 ‘시아주버니, 시아주버님, 아주버니, 아주버님, 서방님’ 또는 미혼이면 ‘삼촌, 도련님’으로 불러 호칭법이 많이 달라졌다. 그 큰 원인의 하나는 後述하겠지만 ‘아자바니>아주버니’의 意味變化 때문임을 먼저 밝혀둔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아재’는 그 원의가 [伯·叔父]였으며 [姪叔], [父 향렬의 남자 친족]의 부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 의미적용범위가 ‘아자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의미가치면에서도 이것이 처음에는 평칭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므로 ‘아자비’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의미적용범위나 의미가치에 있어 ‘아자비’와 동일하며 造語論的으로도 이것에 기반을 두고 後代에 나

8) ‘시아자비, 시아자바니, 시아자바님’이 동일 의미영역이라면 ‘아자비, 아자바니, 아자바님’의 類義語 ‘아자씨, 삼촌’의 ‘시’ 첨가형도 ‘시아자비, 시아자바니, 시아자바님’의 의미와 동일해야 할 것이나 이들은 [남편의 형제]아닌 [남편의 삼촌]을 뜻하여 의미가 달라진다. 현대국어에서 대체로 호칭어에 ‘시’가 붙으면 남편과 관련된 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어가 됨이 특징적이다. (例, ‘시아주머니 [남편의 아주머니]’)

例, 시아자시 姪三寸 <國漢 p. 61>

시삼촌(姪三寸) : 남편의 삼촌 <우리말사전 p. 884>

9) 물론 ‘처’에게는 ‘시아저씨, 시삼촌’이라는 관계지시호칭어가 따로 있다.

타났다면 ‘아재’는 충분히 ‘아자비’의 대체형 단어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재’가 ‘아자비’의 대체어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단어세력은 그리 크지 않았고 중앙어에서의 존속기간도 짧았던 듯하다. 20세기초의 신소설에 ‘아자비’의 용례는 가끔 보이나 ‘아재’의 용례는¹⁰⁾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20세기초에 중앙어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재’의 쇠퇴의 원인도 ‘아자비’의 그것과 같이 평칭화된 ‘아자바니’나 ‘아자씨’의 견제력 때문으로 이해된다. 현대어에서의 ‘아재’는 중앙어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로 광범위한 지역방언으로 존재한다. 특히 강원도, 함경도 일부에서는 ① [嫗叔, 伯·叔父]와 같은 남성에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아즈미’가 담당했던 ② [媪母, 고모뻘 되는 여자]의 여성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해 李翊燮(1976)에서는 同一形態의 意味分化的 특수 예로 처리한 바 있다.¹¹⁾

10) ‘아재’의 실제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우리말사전>(1938), <조선말큰사전>(1947)에는 등재되어 있다.

例, 아재 ㉠ 「아재비」의 준말

㉡ 자매(姊妹)의 남편(여자쪽에서 쓰는 말) <우리말사전 p.923>

아재 ① “아저씨”의 낮춤말

② “아주머니”의 낮춤말 <조선말큰사전 p.1987>

<우리말사전>의 ㉠은 이것이 [형부]의 의미로까지 쓰였음을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이것이 남성의 대표적 친족호칭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리고 <조선말큰사전>은 이것이 ‘아자비’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비칭화되었음을 알려준다.

11) 그런데 이때의 ‘아재’를 단지 意味分化的 예로 처리할 수 있는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싶다. 앞에서 필자는 ‘아재’가 ‘아자비’의 ‘아자’를 語根으로 한 형태라고 추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어법상 ‘아자미’로부터도 ‘아재’가 가능할 듯하다. 즉 造語 根源이 다른 ‘아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자비’를 근거한 ‘아재’는 ①의 의미로 ‘아자비’를 근거한 ‘아재’는 ②의 의미로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재’가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남성을 위해서는 다른 호칭어를 마련해 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987년 1월의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중국의 동포교수 최길언님으로부터 연변지방의 ‘아재’는 [媪母, 姨母]를 뜻한다는 발표내용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 Harvard대 유학생 J. R. P. King으로부터 소련의 한

Ⅱ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伯·叔父], [伯·叔母]의 호칭어 중 形態나 意味變化라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아자바니’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것이 尊稱形 ‘아자바님’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¹²⁾ 그리고 적어도 19세기말에는 尊稱의 平稱化 과정을 마쳤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자바니’의 의미변화는 의미가치 변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몇 단계 의미상실을 수반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한불조언>의 例文 (4)a의 ‘아자버니’에 대한 기술에는 이것의 의미가 [아버지의 형제, 어머니의 형제, 시형제, 아버지의 사촌형제]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전 시대의 원래의 形態 ‘아자바님’의 의미 영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물론 사전의 보수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國漢會語>(1895)와 <朝鮮語辭典>(1920)의 ‘아자바니’, 또는 ‘아자바님’에 대한 의미 진술은 <한불조언>(1880)의 그것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6) 아지반이(媿叔稱夫兄弟) <國漢 p. 64>

(7) 아자바님 ①父母と同列の男子(父母の兄弟以外)(아자씨, 아주버님, 아즈버님)
②夫と同列の男子の稱(아주버님, 아즈버님) <朝鮮語辭典 p. 565>

例文 (6)의 ‘아지반이’는 물론 ‘아자바니’의 異形態라서 형태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이것에 [媿叔]의 의미만 부여되고 있어 의미면에

극어 방언에서 ‘아재’가 역시 여성인 [姑母]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공 받은 바 있다. 여기에서는 [三寸]은 ‘아자배’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함경도 방언의 수용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어쨌든 ‘아재’에 대한 이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성질이다.

12) 그렇게 보는 것은 ‘아자바님>아자바니’의 변화가 ‘아바님>아바니’, ‘어마님>어마니’의 변화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雅言覺非>(1819)의 ‘阿自般伊’(*아즈반이)로 보아 이러한 변화는 이 보다 앞선 시기인 19세기 이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例, 嫂者兄妻也東俗弟妻亦謂之弟嫂叔者夫弟東俗夫兄亦謂之叔氏呼之曰阿自般伊 <雅言 권二>

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의미부여는 사전 편찬자의 자의성에 따라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의미만이 정확한 해당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부여된 의미는 적어도 그 주된 의미의 하나가 됨은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아저씨가’는 [媿叔]의 의미만 지니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의미가 있었어도 [媿叔]의 의미가 제일의 그 주된 의미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伯·叔父]의 의미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 그것은 <國漢會語> 보다 20여년 후의 <朝鮮語辭典>(1920)의 ‘아자바님’에 대한 의미기술에는(例文(7)) [伯·叔父]를 분명히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國漢會語>의 시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例文(7)의 기술에 충실한다면 20세기초의 ‘아자바니, 아자바님’에는 [伯·叔父], [外叔]의 의미는 없었고 [媿叔], [父母 항렬의 남성 친족]의 의미만 있었다고 결론된다. 전자의 사실은 실제 용례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20세기초의 신소설에는 [父母 항렬의 남성 친족]의 의미로 쓰인 용례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伯·叔父], [外叔]의 의미로 쓰인 용례는 하나도 없다. 전자의 사람들은 거의 ‘아저씨’로,¹³⁾ 후자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작은아바지, 큰아바지’로¹⁴⁾ 표현되고 있다. 이 때 벌써 [伯·叔父]를 제외한 [父母 항렬의 남성 친족]의 의미도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語辭典>(1920)과 편찬 연대가 비슷한 文世榮의 <우리말사전>(1938)에서도 ‘아주버니’에서¹⁵⁾ [伯·叔父]의 의미는 제외되고 있어 의미 부여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8) 아주버니 ① 아저씨

② 남편과 같은 항렬되는 남자 <우리말사전 p.1026>

20세기초는 ①의 ‘아저씨’에 [伯·叔父]의 의미는 없던 시기이므로(이에 대해서는 후에 기술됨) 전체적인 의미기술이 <朝鮮語辭典>(1920)

13) 뒤의 例文 (14) 참조.

14) 앞의 例文 (10) 참조.

15) ‘아자바니’ 아닌 ‘아주버니’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를 넘어서인 듯하다. 이것은 ‘아자바니>아즈버니>아주버니’의 변화 결과이다.

의 ‘아자바님’에 대한 기술과 같다. 대표적 표제어를 ‘아자바님, 아자바니’ 아닌 ‘아주버니, 아주버님’의 ‘우’ 계열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이전의 〈朝鮮語辭典〉(1920)과 다르다. 어쨌든 비슷한 시기의 相異한 두 사전에서의 동일한 意味解釋은 그 의미가 당시의 精確한 해당의미임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후 완성된 〈조선말큰사전〉(1947)의 ‘아주버니’에 대한 意味解釋은 위의 두 사전과 또 달라져 있다. 여기에서는 두 사전의 ㉠ ①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 (9) 아주버니: 남편의 한 항렬되는 사내(아자바니, 아즈버니, 아저버니)
 〈조선말큰사전 p.1988〉

위의 기술대로라면 적어도 1940년대에는 ‘아주버니’의 의미는 단일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실제 용례를 통해볼 때 벌써 20세기초에 일어나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19세기의 80년대(한불조던)에서 20세기의 40년대(조선말큰사전) 사이의 길지 않은 기간에서 ‘아자바니’에 대한 의미기술이 몇가지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이것의 의미변화가 이 기간 사이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그 의미변화의 첫 단계는 原義인 [伯·叔父], 그리고 [外叔]의 의미를 잃는 단계이며 그 다음은 [父母와 같은 항렬의 남자 친족([伯·叔父], [外三村] 제외)의 의미를 상실하는 단계이다. 전자의 변화는 20세기 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으며 20세기초에는 완료된 상태이고 후자의 변화는 20세기초 〈조선말큰사전〉(1947)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용법과 사전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후자의 변화도 20세기초에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렇게 두 단계의 의미상실의 결과 ‘아자바니>아주버니’에 [媿叔]의 의미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아주버니’의 의미가 [媿叔(남편의 형제)]이라 하더라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것으로 호칭되는 대상은 남편의 형에 한하고 그 아랫사람에게는 ‘삼촌’(기혼, 미혼일 경우), ‘서방님’(기혼일 경우)이나 ‘도련님’(미혼일 경우) 이라는 호칭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처음부

16) 관계지시호칭으로는 ‘시동생(媿同生)’이 있다.

터 남편의 형제를 구별하여¹⁷⁾ 호칭어를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구별 표현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인 듯싶다.

그러면 이 ‘아자바니’의 의미축소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¹⁸⁾ 단어의 의미변화도 단어소실과 마찬가지로 대체단어의 확보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속성이라면 이것의 의미축소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아자바니’의 의미축소는 상실된 의미〔伯·叔父〕,〔父母와 같은 항렬의 남자 친족〕을 대신할 대체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類義衝突의 결과 의미축소가 일어났다는 관점인데 유의경쟁의 결과적인 양상으로 의미축소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때 이것의 대체단어, 말하자면 유의경쟁어는 이것과 동일 의미영역을 접하며 19세기에 등장한 ‘아자씨’일 것이다. 또한〔伯·叔父〕의 의미에 한정되지만 ‘아자씨’와 비슷한 시기에〔伯父〕,〔叔父〕라는 개별의미를 띠고 나타난 ‘큰아바지, 작은아바지’도 강력한 견인력을 행사한 경쟁어임에 틀림없다. ‘아자바니’의〔伯·叔父〕의 의미는 이들 ‘아자씨, 큰아바지, 작은아바지’ 삼자에,〔父母와 같은 항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는 ‘아자씨’에 넘겨줌으로써 의미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먼저, ‘아자바니’에서의〔伯·叔父〕의 의미상실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의 의미상실 원인을 類義競爭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伯父〕의 경쟁어는 ‘아자씨, 큰아바지’이며〔叔父〕의 경쟁어는 ‘아자씨, 작은아바지’가 된다. 이 중 ‘아자바니’와 ‘아자씨’의 類義關係는 중첩에 의한 것이며 ‘아자바니’와 ‘큰아바지, 작은아바지’의 그것은 포함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자바니’와 ‘아자씨’의 의미중첩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앞의 例文(3)이 해결해 준다. 例文(3) a는 ‘아자씨’가〔伯父, 叔父, 外三寸〕과 같은 부모와 가까운 남자 친족을 뜻했음을, (3)b는 이것이〔嫗叔〕의 의미됨, (3)c는 이것이 ‘아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서 ‘아자씨’의 의미

17) 註 12) 例의 남편의 아우나 남편의 형을 모두 ‘*아자바니’라고 한다는 기록을 통해볼 때 원래는 이들을 구별호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 본고에서의 ‘의미축소’란 의미의 특수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 의미의 일부 의미가 상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미가 줄어든 것을 말한다.

영역이 관련어 ‘아자비, 아자바니, 아자바님’의 그것과 같았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자씨’는 얼마간은 ‘아자바니’와 거의 일치하는 의미 중첩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가정된다. 이 ‘아자씨’의 單語構成이 ‘아자비’로부터의 誤分析에 의한 ‘아자+씨’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의 ‘아자비, 아자바니’와의 의미 관련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런데 ‘아자씨’가 ‘아자바니’의 대립어로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것의 의미가치가 ‘아자바니’의 그것과 같았음이 또한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특정 시기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밝히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싶다. 이것이 존칭접미사 ‘-씨’를 포함하기 때문에 원래는 존칭형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아자바님’과 맞먹는 호칭어인 것이다. 실제 <朝鮮語辭典>(1920) (例文(7))에서는 ‘아자바님’에 ‘아자씨’를 대응시키고 있어 위의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사용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의미가치에 손상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때에는 평칭 이상으로 인식되던 ‘아자바니’와 같은 정도의 의미가치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자씨’와 ‘아자바니’를 동일한 의미가치로 기술한 (3)c와 (4)c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기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초의 ‘아자바니’를 대신한 이것의 실제용례와 친족호칭어 아닌 일반호칭어로서의 확대용례는¹⁹⁾ 이것의 평칭화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그리하여 <우리말사전>(1938)에서의 ‘아저씨’의 의미부여에 평칭화된 ‘아주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아자씨’는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에 ‘아자바니’의 類義競爭語로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 ‘아자씨’의 등장은 기존의 ‘아자바니’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오로지 ‘아자씨’에 의해 [伯·叔父]의 상실 여건이 조성된 것만은 아니다. 그 의미상실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개별 의미단위의 호칭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로 간주된다. 그것은 이들이 ‘아자씨’ 보다는 指示意味가 구

19) 앞의 例文 (15) 참조.

20) 아저씨 : 아주머니의 남편, 아제비 <우리말사전 p.923>

체적인 호칭어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자씨’로부터의 전제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또 다시 새로운 부담요소가 가중되어 단어 세력 약화라는 필연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 단어세력 약화로 인해 대립의미인 [伯·叔父]의 意味를 다른 의미에 배앗긴 결과 의미축소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아자바니’ 쪽에서 보면 類義衝突을 피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서 그 해당의미를 상대어에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 그 유력한 상대어는 ‘큰아바지, 작은아바지’라는 것인데 이들이 행사한 전제력이 상당하였음은 ‘아자씨’로부터도 [伯·叔父]의 의미를 빼앗고 있는 사실로도 증명된다(이에 대해서는 後述할 것임).

이러한 [父]의 ‘아바지’에 근거한 [伯·叔父]호칭어의 등장은 기존의 ‘아자바니, 아자씨’의 의미확대로 인한 原義 이탈에 기인하는 듯하다. 즉 이들이 확대된 의미로 주로 기능하자 고유 의미영역의 空洞化 현상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 출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대체단어의 출현은 기존단어의 해당의미가 다하기 전에 잇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 단어의 의미변화도 새로운 명칭의 생성 후의 일이다. 이들 동일개념의 다른 명칭(소위 類義語)들이 신생과 소멸(변화) 사이에서 얼마간 공존하게 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의경쟁이란 이들 사이에서의 현상이다. [伯·叔父]의 경우 新生語는 ‘아자씨, 작은아바지, 큰아바지’가 되며 消失語는 ‘아자바니, 아자씨’가 되는 셈이다.

[伯·叔父]의 가장 새로운 호칭어 ‘큰아바지’와 ‘작은아바지’는 19세기말에 그 첫 모습이 보이고 있다(例文(5)a, b). 20세기 이후의 [伯父], [叔父]는 거의 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20세기초의 신소설의 실제용례에서 [伯父], [叔父]가 이들 이외의 고유어로 표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특수한 환경(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自稱할 때)에서는 이들의 비칭이라 할 수 있는 ‘작은아비, 큰아비’가 보일 뿐이다.²¹⁾

(10) a. 너 아버지는 형님의 자근아바지시오 형님 아버지는 나의 큰아바지신디

21) 이들 이외에 ‘작은아바’의 용례로 보이는데 ‘작은아바지’의 誤字일 가능성도 있다.

예, 그 새짓 도적마진 것은 오히려 들스지 울시다마는 작은아바의셔 보 너신 <현미경 p. 233>

- 니 아버지 도라가신디 졸꼭이 다 지나도록 령연 일푼을 안이 호오 큰 아버지 도라가셨을 썬에는 <구마점 p. 28>
- b. 우리 큰아버지 당년이 엇그게 호흔디 <구마점 p. 59>
- c. 큰아버지 오시거든 너가 왓드란 말십 말으십시오 <목단화 p. 54>
- d. 아모리 울으시면 도라가신 자근아버지가 살아오시나 <홍도화상 p. 2>
- (11) a. 허 그것이 모다 네 작은아비의 허물일다 <현미경 p. 85>
- b. 이이 나는 너를 친졸갓치 아논디 너는 작은아비를 외디 호드구나 <현미경 p. 88>

물론 이 시기에 이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외의 한자어 ‘叔父, 伯父, 三寸, 三寸宅’ 등도 많이 보이지만 이들은 본래 관계지시호칭이고 직접면접호칭은 ‘아버지’ 계열로 굳어졌다.

- (12) a. 가사는 숙부의게 부탁호옵고 <雪中梅 p. 5>
- b. 함진희가 다시 키가홀 겨를이 업시 당초에 그 삼촌 도라가서 삼년이 지나도록 <구마점 p. 65>
- c. 너는 잠시 고초를 격그나 네 슴촌티오로만 올라가면 다시 무슨 걱정이 있겠너 <현미경 p. 39>

우리는 앞에서 ‘아저씨’가 ‘아자바니’의 [伯·叔父]의 소실에 일조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또한 [伯·叔父]의 의미를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에 잃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아저씨’는 원의인 [伯·叔父]의 의미를 ‘아자바니’의 [伯·叔父]의 상실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잃고 있는 것이다. <朝鮮語辭典>(1920)의 다음의 기술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의미해석이다.

- (13) 아저씨 「아자바님」의 ⊖에同じ <朝鮮語辭典 p. 565>

위의 例文은 ‘아저씨’의 의미가 ‘아자바님’의 ⊖의 의미와 같다는 것인데 例文 (7)에서 보았듯이 ‘아자바님’의 ⊖에는 [伯·叔父], [外叔父]의 의미는 제외되고 있어 당시에 ‘아저씨’의 의미에도 [伯·叔父]의 의미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전의 기록에 충실한다면 20세기 초의 ‘아저씨’에는 [伯·叔父], [外叔父] 그리고 [媿叔]의 의미가 제거

되고 [父母 행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만 있었다는 것이다. 원의인 [伯·叔父]를 잃는다는 점에서는 그 소실 시기의 선후에는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아자바니’의 경우와 같다. 이것의 [伯·叔父]의 의미소실의 원인도 ‘아자바니’의 그것과 같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의 類義衝突의 결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자바니’는 [父母 행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를 잃어 다시 의미축소 과정을 밟는다면 ‘아자씨’는 축소와 확대를 함께 경험하여 다른 의미변화의 길을 걷는다. 이때 의미축소는 다음이던 [媿叔]의 의미상실이며 확대는 친족호칭어에서의 일반호칭어로의 轉用을 말한다. <朝鮮語辭典>(1920)의 의미기술에는 일반호칭어로의 확대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과 비슷한 시기의 신소설의 실제 용례에서는 이미 나이든 남성에 대한 일반호칭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伯·叔父], [媿叔]으로의 ‘아저씨’의 用例는 하나도 없다.

- (14) a. 부인이 눈을 써서 둘러보더니 업던 정신이 변쩍나서 아자씨 나중 살너
쥬십시오 <홍도화하 p.84>
- b. 외습손이 혼처 의논할 세에도 영창이 심각이 세에 사마쳐서 저는방으로
드러가 눈물을 물너 씨스며 속마음으로 「부모가 나를 이왕 영창의
게 허락했스니 나는 죽어 빅골이 되야도 영창의 안전이라 비록 영
창이는 불쌍할았슬지라도 나는 결코 두 사람의 처는 되지 아니할 터
이오 저 아저씨는 아모리 즐미할다 할야도 입에선 바랄만 되릴걸」하
는 심각이 되수에 밋쳤스니 <쥬월식 p.30>
- c. 아자씨니 족하니 할며 심각도 아니할었던 슈작을 할는지라
<쌍옥적 p.39>
- d. 아저씨한테서두, 참 어서 그리히스면 뭇кет소 <두선성上 p.87>
- (15) a. 아자씨 여피가 어되오닛가 <목단화 p.34>
- b. 김씨를 보던 지의 아버지를 본드시 반가워서 크지나오며 아저씨 아저
씨 하고 자른다 <銀世界 p.84>

例文(14)a,b의 ‘아자씨’는 문맥상 [外叔]이며 (14)c의 ‘아자씨’는 從妹인 조카의 호칭어이므로 [父母 행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14)d의 ‘아저씨’는 문맥상 [媿母夫]를 뜻하는데 넓게 보

아 [父母 항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로 분류된다. 즉 (14)의 a, b, c, d의 ‘아자씨’는 모두 친족호칭어로서의 용례이다. 특이한 점은 <朝鮮語辭典>(1920)에서 제외하고 있는 [外叔]의 의미로 ‘아자씨’가 쓰이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外叔]의 의미는 ‘외삼촌’이 담당함으로써 ‘아자씨’는 점차 [外叔]으로의 의미기능을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例文 (14)의 ‘아자씨’가 친족호칭어인 반면 (15)의 ‘아자씨’는 이것에서 벗어난 일반호칭어로서의 예이다. 이미 20세기초에도 실제로는 일반호칭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朝鮮語辭典>(1920) (例文 (13)) 뿐만 아니라 이보다 뒤에 나온 <조선말큰사전>(1947)에도 [父母와 한 항렬되는 남자]라는 친족호칭어로서의 의미만 부여되고 있어 사전의 보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분명한 것은 20세기초에는 ‘아자씨’에 [伯·叔父], [媿叔]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전자의 의미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후자의 의미는 ‘아자바니’에 넘겨준 결과이다), 그리고 친족호칭어로서의 용법뿐만 아니라 의미확대 과정을 겪은 일반호칭어로서의 용법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아자씨’의 의미변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9c	20c 초
아자씨	① [伯·叔父] →	① ×
	② [媿叔] → 의미축소	② ×
	③ [父母 항렬의 남자] → 의미확대	③ [父母 항렬의 남자] ④ [父母와 같은 또래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는 ‘아자바니’에서의 [伯·叔父] 의미의 소실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아자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의 類義競爭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伯·叔父]의 通稱語라는 점에서 ‘아자바니’의 계승호칭어로서의 자격을 지니는 ‘아자씨’에서의 [伯·叔父], [媿叔]의 의미상실 과정과 원인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우리가 ‘아자바니’에서의 [伯·叔父]의 의미상실의 원인을 類義競爭의 결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자바니’에서의 [伯·叔父]의 의미상실의 시기와 관련어 ‘아자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득세시기가 엇비슷한 데에 근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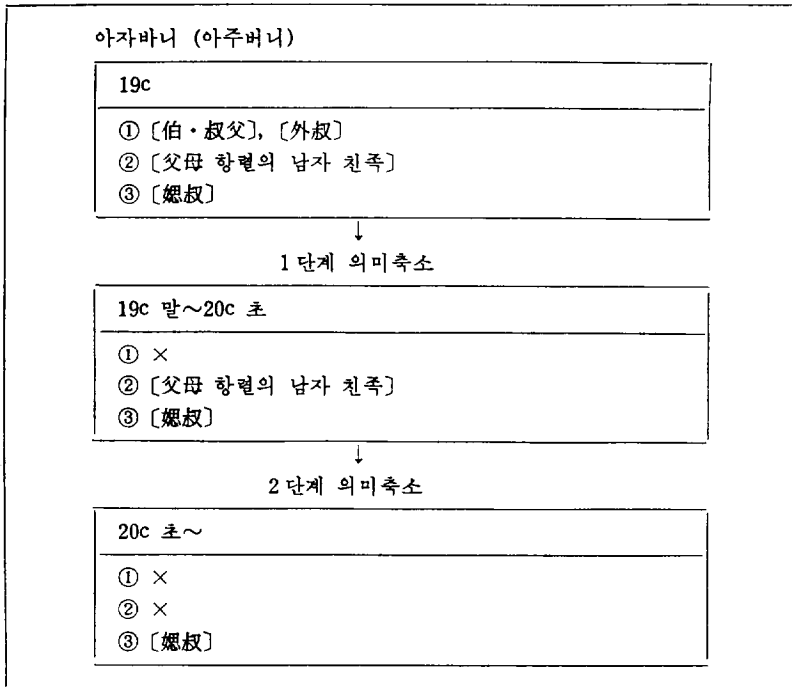
는 것이다. [伯父], [叔父]의 類義競爭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9c	20c 초
[伯父]	① 아자바니 ② 아자씨 類義競爭 ③ 큰아버지	① × ② × ③ 큰아버지
[叔父]	① 아자바니 ② 아자씨 類義競爭 ③ 작은아버지	① × ② × ③ 작은아버지

다음으로, ‘아자바니, 아자바님’의 이단계 의미축소 즉 [父母 항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소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것의 의미소실 시기를 <조선말큰사전>(1947) 이전, 더 소급해서 20세기 이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朝鮮語辭典>(1920), <우리말사전>(1938)에서는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20세기초의 신소설의 실제용례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인 ‘아자바니’는 거의 없고 그 의미를 ‘아자씨’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자바니’의 이단계 의미축소를 일단계에서처럼 類義衝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 경쟁어는 ‘아자바니’와 같이 原義를 상실하고 있던 ‘아자씨’가 유력하다. 이들은 공히 [伯·叔父]의 의미를 잃음으로써 그쪽에서는 類義關係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부차적 의미인 [父母 항렬의 남자 친족]에서는 여전히 類義衝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부차적 의미로서의 경쟁기간이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伯·叔父] 쪽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같은 결정적 경쟁어가 없이 동일기능의 ‘아자씨’와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자씨’와 類義競爭時 그 우열을 좌우한 요인이 무엇이었던지 분명치 않으나 ‘아자바니’는 새로이 등장한 ‘아자씨’에 [父母 항렬의 남자 친족]의 의미마저 넘겨준 채 스스로는 [嫗叔]의 의미로만 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영역상 관련되는 ‘아자바니, 아자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의미간섭들은 일종의 유의충돌회피를 위한 의미

분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伯·叔父]를 위해서는 個別呼稱語인 ‘큰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선택되면서 삼중의 類義體系가 해체되고 부차의 미에서는 ‘아자바니’와 ‘아자씨’가 유의관계를 형성하다가 이것마저 ‘아자씨’의 승리로 결말이 나면서 이들의 전체 유의관계는 해소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아자바니’는 이것을 代用하던 兄嫂, 弟嫂의 專用 호칭어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아자바니’의 다단계 의미축소 과정을 종합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Ⅲ

19세기말에 있어서의 [伯·叔母]의 호칭어는 중세이래의 ‘아자미, 아

‘아자마님’과 보다 후에 등장한 ‘아자마니>아자머니’, 그리고 [母]의 ‘어마니’를 이용한 ‘큰어마니, 작은어마니’ 등이다. [伯·叔父] 쪽의 ‘아재, 아자씨’에 대응되는 호칭어는 결하고 있어 [伯·叔父]의 호칭체계 보다는 단순한 편이다.

(16) 아자미 嫂 A lower form for 아자머니 <한영 p.15>

(17) a. 아자머니 叔母. S'emploie pour une foule de parents proches: tante, sœur du père, sœur de la mère, etc., belle-sœur, cousine du père, etc., etc., etc. Se dit même sans qu'il y ait liaison de parenté. <한불 p.10>

b. 아자머니 A name given by sons or their wives to the wives of those of the father's generation who have the same clan character. A sister-in-law. (Hon.) <한영 p.15>

(18) a. 큰어머니 The wife of a 큰아버지 <한영 p.298>

b. 작은어머니 Wife of a 작은아버지 <한영 p.712>

위의 例文 (17)a,b에 근거하면 ‘아자마니’는 [伯母, 叔母, 姑母, 姨母, 兄嫂, 弟嫂, 아버지의 사촌(여자)] 등의 의미를 지녀 이전의 ‘아자마님’의 의미와 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의미영역에 관한 한 ‘아자미’도 ‘아자마니’와 같았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意味價値面을 볼 때 ‘아자미, 아자마니’의 그것은 [伯·叔父]의 ‘아자비, 아자바니’와 같았을 것이고 ‘아자미’의 ‘平稱→卑稱’化, ‘아자마니’의 ‘尊稱→平稱’化의 시기와 그 원인 또한 ‘아자비, 아자바니’의 그것과 비슷하였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例文 (17)b에서 ‘아자바니’에 존칭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원래 존칭형 ‘아자마님’에서 출발하여 ‘아자마님’ 보다는 下位지만 적어도 평칭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세기말의 사전에서는 앞에서 보듯 ‘아자미, 아자마니’에 [伯·叔母]의 意味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지만 20세기초의 <朝鮮語辭典>(1920)에서는 ‘아자마님’에서 이것의 의미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아자마님’이 이러하다면 ‘아자미, 아자마니’에도 이것의 의미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 아자마님 ⊖ 父母と同列の男子(父母の兄弟以外)の妻又は姑母。(아주머님·아즈머님).
 ⊖ 兄弟又は自己と同列の男子の妻。(아주머님 아즈머님)
 <朝鮮語辭典 p. 565>

위의 例文의 의미기술⊖은 ‘아자마님’에 父母 同列의 남자의 妻 中에서 父母의 兄弟 妻인 [伯·叔母], [外叔母]의 의미는 분명히 제외시키고 있으며 유독 ‘아자마님’이 포용하는 여러 의미중 [姑母]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²²⁾ 그리고 의미기술⊖은 ‘아자마님’에 [兄嫂, 弟嫂]의 의미가 있었고 자기와 同行列의 남자의 처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직 일반호칭어로서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은 20세기초의 이들의 실제 용례에서 거의 확인된다. 다만 친족호칭어로서의 기능만 제시한 것이 실제와 다를 뿐이다.

- (20) 동대문안 양사골 제 아지미집 건너방 속에 림가와 갖치 된장 독에 뜻고초 빅이듯 <구마경 p. 73>
 (21) a. 우리 아즈머니가 슈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고년의 식탁물 앓겨 이석 짜지 두엇다가 <목단화 p. 28>
 b. 흠 아지머니도 니가 범연이 흥엿갓습닛가 <목단화 p. 52>
 c. 아저씨와 아주머이도 다 안녕하시지 으— 언니훈틱 안부옵디다 <두전성上 p. 87>
 d. 형님과 아즈머이까 작고 별말들을 힌들녀서 더히시오 <힉낙도 p. 39>
 e. 어 아흠에 잠깐 뜬어왔는데 아주머이도 안녕히 계신모양이데 <두전성上 p. 14>

(20)의 ‘아지미’는 이 시기에 드물게 보이는 예 중 하나인데 친족호칭어이긴 하지만 [伯·叔母]의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이것의 호칭자가 친한 인물임으로 해서 그 대상이 ‘아자마니’ 아닌 ‘아자미’로 호칭된 것이므로 이것은 意味價値上 卑稱에 가깝다. 이 ‘아자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자비’처럼 비칭화되면서 호칭어로서의 적격성을 상

22) 이렇게 특히 [姑母]의 의미만 부각시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자마님’의 原義가 [姑母]이어서 [姑母]로의 용법이 왕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대어 사전에 표제어 ‘아주미’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들어보기 힘든 호칭어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 ‘아주미’는 ‘아자미>아즈미>아즈미>아주미’의 과정을 거친 ‘一>ㄷ’ 원순모 음화의 산물이다.

‘아자미’의 쇠퇴한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었던 여성 관련 친족호칭어는 다름 아닌 ‘아자마니’였다. 이러한 사실은 20세기 초의 실제 용례를 통해 여실히 증명된다. 남성쪽의 ‘아자씨’에 대응해 ‘아자마니’의 빈도가 상당한 것이다. 앞의 例文 (21)의 ‘아자마니’는²³⁾ 문맥상 a,b가 [姑母], c가 [姨母], d가 [堂姑母], e가 [兄嫂]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따라서 a,b,c,d의 ‘아자마니’는 <朝鮮語辭典>의 ㊸의 意味記述에, e의 ‘아자마니’는 ㊹의 의미기술에 해당한다. 어느 곳에도 [伯·叔母]로 쓰인 ‘아자마니’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朝鮮語辭典>의 ㊸의 기술과 부합되는 사실이다. 다만 <朝鮮語辭典>의 ㊸의 기술처럼 ‘아자마니’에 [外叔母]의 意味가 없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해당 용례는 보이지 않으나 [外叔]의 의미가 없다고 진술된 (앞의 例文 (13)) 이것의 대응어 ‘아자씨’에도 실제로는 [外叔]의 의미가 있었으므로 ‘아자마니’에 [外叔母]의 의미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 ‘아자마니, 아자마님’에 [伯·叔母]의 의미만은 없었던 것이 확실한데 이들의 [伯·叔母]의 의미상실은 [伯母], [叔母]로서의 指示意味가 구체적인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에 해당의미를 빼앗긴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의 [伯·叔母]의 직접접호칭은 모두 이들이 담당했던 것이다(아래 例文(22) a,b,c,d). 물론 관계지시호칭인 경우에는 한자어 ‘伯母, 叔母’가 많이 쓰였다(아래 例文 (23) a,b).

23) 20세기초에는 이 ‘아자마니’의 여러 異形態가 혼기되고 있었다. 例文(21), (24)에 보이는 ‘아즈머니, 아지머니, 아주머니, 아주면이, 아주머이, 아쥬마니’ 등이 그들이다. 이들 이외에 ‘아저머니<두견성 上 p.38>, 아주머니<두견성 上 p.45>, 아주머니<두견성 下 p.23>, 아주면네<두견성 下 p.18>, 아즈머니<만인제 p.5>, 아자마니<화중화 p.16>’ 등의 이형태가 있었다. 이 중 ‘아주머이’는 특이한데 이것은 ‘앗+아마--이→아자마이>아즈마이>아즈머이>아주머이’의 변화형일 수도 있고 ‘아주머니’의 ‘니’ 탈락형일 수도 있다(cf. 가마니>가마이, 주머니>주머이(일부방언)). 그리고 ‘아주면네’는 ‘아주머니’에 접미사 ‘-네’가 결합된 후 축약된 것이다.

- (22) a. 자근어마니 웨 이러케 울으심닛가 <흥도화上 p. 2>
 b. 눈물이 나오는지 안이 나오는지 호들갑시럽게 울어너더니 주귀 빅모
 를 가장 위로호는 체하고 큰어머니 ㅅㅅㅅㅅ 고만 굶치십시오
 <모란병 p. 84>
 c. 큰어머니 제가 이길로 써나서 슈복이 종적을 탐지하겠습시다 <모란병
 p. 86>
- (23) a. 과부 숙모를 속이고 <모란병 p. 82>
 b. 자네 빅모가 손톱만치도 의심을 안이하고 <모란병 p. 98>

이 ‘아자마니’는 이것이 지니던 일부의미를 잃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족호칭어 아닌 일반호칭어로서의 극대의 확대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것이 일반호칭어로 확대될 수 있으려면 친족호칭어로도 최대로 확대되어 있었을 것이 전제되는데 ‘아자마니’는 이에 대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일반호칭어로 쓰인 ‘아자마니’이다.

- (24) a. 엇던 집에는 녀자들이 모여 안져서 아쥬마니 그 식시 잘도 낮지 엇지면
 그러케 엄전 하게 싱겼서 <화세계 p. 57>
 b. 저귀 선 저 아쥬머니 치마 뒤에 흙 못엇쇼 <銀世界 p. 44>

요컨대, 20세기초의 ‘아자마니’는 原義 [姑母]의 의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副次義 중 [伯·叔母]의 의미만 상실한 것으로 결론된다. 그리고 의미확대의 폭이 친족호칭어를 넘어서 일반여성호칭어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일반호칭어로서의 용법을 반영하지 않은 <朝鮮語辭典>(1920)의 기술은 자연스럽게 사전의 보수적 속성 탓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실제용례의 의미와 부합된다.

‘아자마니, 아자마님’에서의 [伯·叔母]의 의미상실은 ‘아자마니, 아자마님’ 쪽에서의 [伯·叔父]의 의미상실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그런데 관련의미가 소실되었다 하더라도 전자는 副次義가 상실된 것이며 후자는 原義가 소실된 것이어서 상실된 의미의 성질이 다르다. 이러한 의미소실은 모두 대체 단어(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의 마련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아자마니, 아자마님’ 파

‘아자바니, 아자바님’은 이단계 의미축소에도 판이한 양상을 보인다. 후자가〔父母 항렬의 남성 친족〕이라는 副次義를 다시 상실하는데 반해 전자는 이것에 대응되는〔父母 항렬의 여성 친족〕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들을 표현할 대체단어의 유무에 의한 결과에 불과한 듯하다. 만약 ‘아자바니〔父母 항렬의 여성 친족〕’의 경우도 ‘아자바니〔父母 항렬의 남성 친족〕’와 같이 對立語(즉, 아자씨)가 있었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유지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자바니〔父母 항렬의 여성 친족〕’에는 그 경쟁어가 존재하지 않아 그 해당의미를 어렵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의미도 점차 개별 단위의 호칭어들, 말하자면 직접면접호칭화된 ‘姨母, 姑母, 外叔母’ 등으로 표현되어 친족호칭어로서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친족호칭어에서 일반호칭어로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자바니, 아자바님’과 ‘아자바니, 아자바님’은 또 다른 성격을 보인다. 전자만 이러한 과정을 겪고 후자는 친족호칭어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자바니, 아자바님’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호칭자가 ‘兄嫂, 弟嫂’라는 특정인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호칭어로서는 확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서 일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호칭어로 확대된 ‘아자바니’는 원래의 대립쌍 ‘아자바니’가 아닌 ‘아자씨’와 한쪽을 이룬다. 이렇듯 ‘아자바니’가 ‘아자바니’와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자바니’의 여린 단계에 걸친 의미축소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朝鮮語辭典〕(1920) 이후의 ‘아자바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과 10여년 相距가 있는 〔우리말사전〕(1938)에서의 ‘아자바니’에 대한 의미해석은 〔朝鮮語辭典〕(1920)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다음에서 보듯 대표적 표제어가 ‘아자바니’ 아닌 ‘아주머니’의 ‘우’ 계열로 고정된 것이 다를 뿐이다.²⁴⁾

(25) 아주머니 ⊕ 부모와 같은 항렬되는 여자

24) 註 22)에서 보았듯 20세기 실제용례에서는 이미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쥬마니’와 같은 ‘우’계 호칭어가 보인다.

곧 아버씨의 안해

⊖ 「고모」(姑母)와 같음

⊖ 형제 또는 자기와 같은 항렬되는 남자의 안해

〈우리말사전 p.923〉

위의 ①의 의미부여에서, 이 때에는 이미 ‘아자씨’가 일단계 의미변화(〔伯·叔父〕의미상실)를 겪은 후이기 때문에 [아버씨의 안해]에 [伯·叔父]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5)의 ①②는 〈朝鮮語辭典〉(例文(19))⊖과 같다. 또한 ③이 앞의 ⊖와 부합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해석이다. 비슷한 시기의 두 사전의 의미기술이 거의 같다는 것은 그 해당 의미를 비교적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다만 이 곳에서도 일반호칭어로서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당시의 실제용법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광복 후에 나온 〈조선말큰사전〉(1947) 의미기술은 두 사전과 약간 달라져 있다.

(26) 아주머니 ① 부모와 같은 항렬되는 부인

② 사내가 한 항렬되는 이의 아내 〈조선말큰사전 p.1988〉

여기에서는 〈朝鮮語辭典〉(1920), 〈우리말사전〉(1938)에서 특별히 내세우고 있는 [姑母]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머니’에서 [姑母]의 뜻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주머니’에서 [姑母]의 의미가 희박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한자어 ‘姑母’의 득세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일반호칭어로서의 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朝鮮語辭典〉(1920)과 같다. 이것이 사전에 명記된 것은 최근의 일인 듯싶다.

다음은 최근 사전에서의 의미기술이다.

(27) a. 아주머니 ①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항렬의 여자

② ‘형수’를 정답게 부르는 말

③ ‘동년배’ 또는 ‘젊은 남의 부인’을 높여 정답게 부르는 말 〈새우리말본사전 p.2187〉

b. 아주머니 ① 어버이와 같은 항렬의 여자

- ② 아저씨와 아내. 숙모(叔母)(동)
 - ③ 자기와 같은 항렬되는 사람의 아내
 - ④ 부인네를 높이어 정답게 이르는 말
- 〈다목적종합국어사전 p.993〉

(27)a에서는 [姑母] 아닌 [兄嫂]를 부각시키고 있고 (27)b에서는 [叔母]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데 [兄嫂]를 ‘아주머니’로 부를 수는 있으나 [叔母]는 어색해 보인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주머니’에서 [伯·叔母]의 의미는 이미 20세기초에 상실된 것이었다.

(27)b에서 ①②③이 여성 친족원에 대한 것이라면 ④는 어느 정도 나이 든 일반여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친족호칭어로 쓰일 경우 사전에서는, (27)b의 ①②③과 같은 폭넓은 의미영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 중 ①은 ‘아주머니’ 아닌 호칭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지시해 주는 개별 호칭어로 표현되는 것이 현실이다(例, 姑母, 姨母, 外叔母 등). 그러나 ②③은 아직도 ‘아주머니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일부의 의미를 단일호칭어들에 넘겨주게 되자 상대적으로 ④의 의미로의 용법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주머니’는 남성쪽의 ‘아저씨’의 대립어로 존재한다.²⁵⁾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말 이후의 [伯·叔母]의 호칭어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면서 특히 ‘아자마니, 아자마님’의 의미변화에 주목해 보았다. 그 결과 적어도 20세기 이후에는 ‘아자마니, 아자마님’에 [伯·叔母]의 의미는 사라졌으며 그것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큰어머니, 작

	19c	20c 초
아자 마니	① [姑母] ② [父母와 같은 항렬되는 여자 (伯母, 叔母, 姨母, 外叔母 등)] → 의미축소 ③ [형제 또는 자기와 같은 항렬되는 남자의 아내] ④ ×	① [姑母] ② [伯·叔母] 상실 ③ [형제 또는 자기와 같은 항렬되는 남자의 아내] ④ [부인네]

25) 아저씨의 대립어로는 ‘아주머니’ 말고도 ‘아줌마’가 존재한다. 물론 이들은 의미가치면에서는 다르다. 이 ‘아줌마’는 후기중세국어의 직접면접호칭 ‘아즈마’에 소급되는 ‘아즈마>아즈마>아주마>아줄마’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ㅁ’ 첨가형태라는 점에서 ‘어마>엄마’와 비교된다.

은어마니, 큰어마님, 작은어마님'과의 類義競爭의 결과라는 사실과 '아자마니'는 의미축소와 확대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아주머니'로 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자마니'의 의미변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IV

지금까지 우리는 親族呼稱語中 [伯·叔父], [伯·叔母]의 고유호칭어에 대해 1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들의 시대별 변모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삼기로 한다.

1. '아자비, 아즈미'의 原義는 전자가 호칭자와 남성으로서 三寸關係인 [伯·叔父], 후자가 여성으로서 三寸關係인 [姑母]이다. 즉, 이들은 父系로서 性만 다른 同一行列의 인물에 대한 호칭어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동일 조건의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이들의 原義 구명은 形態·意味上 한 계열을 형성하는 관련어들(아비, 아미>○미, 한아비, 한(아>○)미) 속에서의 위치확인의 결과이다.

2. [伯·叔父], [伯·叔母]의 호칭어를 기능상 구별할 때 '아자비, 아즈미'가 관계지시호칭이라면 '아자바, 아즈마'는 직접면접호칭이며 이것에서 출발한 존칭형 '아자바님, 아즈마님' 또한 같은 기능이다. 평칭인 경우는 관계지시호칭과 직접면접호칭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으나 존칭의 경우는 원래 관계지시호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면접호칭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 [伯·叔父], [伯·叔母]의 호칭체계는 평칭과 존칭의 단순한 二元的 體系에 불과하다.

이들 [伯·叔父], [伯·叔母]와 관련된 호칭어로 '아자버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伯父母], [叔父母]의 남성·여성 한 단위의 上位概念의 호칭어였다. 이것의 의미부여도 造語法上 한 계열에 놓이는 '어버이, 한어버이'와의 전체구조 속에서의 위치결정이었다.

3. 근대국어 얼마간의 [伯·叔父], [伯·叔母]의 호칭체계는 후기중세국어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이 때에는 관계지시호칭인 한자어들(伯父, 伯母, 叔父, 叔母)의 부상이 특징적이다. 특히 上位概念語 '아즈비, 아즈바님'에 대응되는 '三寸'의 호칭어화가 주목된다. 물

른 이것의 친족관계 정도표시어에서의 친족호칭어로의 轉用은 후기중세 국어에서 이미 확인된다. 이들 한자어들의 득세는 상대적으로 고유어 쪽의 관계지시호칭어들의 약세뿐만 아니라 의미가치 변화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19세기 이후는 [伯·叔父], [伯·叔母]의 호칭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아자바님, 아자마님’의 ‘ㄷ’ 탈락형 ‘아자바니, 아자마니’ 그리고 ‘아자씨, 아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등의 새로운 호칭어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 일부 호칭어에 복잡한 의미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아자비, 아자미’의 비칭화와 ‘아자바니, 아자마니’의 평칭화에 따라 이전의 평칭:존칭의 이원적 호칭체계가 비칭:평칭:존칭의 삼원 체계로 체계의 변모를 꾀한다.

이들의 의미변화는 거의 유의경쟁의 결과적인 양상으로 이해되는데 그 변화는 대체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때 ‘아자바니’는 ‘아자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의 유의경쟁에서 [伯父], [叔父] 그리고 [父母 항렬의 남성친족]의 의미를 잃고 [媿叔]의 의미로만 한정되어 지금 ‘아주버니’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자씨’ 또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그 원의를 잃고 [父母 항렬의 남성친족]을 뜻하는 대표적 호칭어로 쓰이다가 일반 호칭어로까지 확대되어 지금은 이것으로서의 기능이 단연 우세하다. ‘아재’는 ‘아자비’와 더불어 의미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방언형으로 존재한다. ‘아자마니’는 부차적 의미 [伯·叔母]를 ‘큰어머니, 작은어머니’에 넘겨주고 지금은 ‘아주머니’라는 형태로 남성 쪽의 ‘아저씨’와 짝을 이루어 일반호칭어로서 기능한다.

결국 지금의 [伯·叔父], [伯·叔母]의 고유호칭어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준으로 위, 아래 인물을 가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일반적이다. 물론 존칭형으로는 ‘아버님, 어머니’를 이용한 호칭어가 쓰인다. 그리고 유아어 ‘엄마, 아빠’를 이용한 ‘큰엄마, 작은엄마, 큰아빠, 작은아빠’도 위상을 달리하여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資料 및 略號

雞林類事	〈雞林類事〉
大明律直解	〈大明律直解〉
龍飛御天歌	〈용〉
釋譜詳節	〈석〉
月印釋譜	〈月〉
杜詩諺解	〈杜·초〉
內訓	〈內〉
翻譯老乞大	〈번·노〉
訓蒙字會	〈字會〉
小學諺解	〈小언〉
家禮諺解	〈家언〉
警民編諺解	〈경민〉
譯語類解	〈譯〉
全一道人	〈全一〉
御製內訓	〈어·내〉
同文類解	〈同文〉
種德新編諺解	〈종덕〉
漢清文鑑	〈한청〉
閑中錄(李秉岐, 金東旭校注)	〈閑中〉
敬信錄諺釋	〈敬·釋〉
正俗諺解(일사文庫本)	〈正俗일사〉
華音方言字義解	〈華方〉
雅言覺非	〈雅言〉
玩月會盟宴(金鎮世活字本)	〈玩月〉
太上感應篇圖說諺解	〈太上〉
노한조던	〈노한〉
한불조던	〈한불〉
國漢會語	〈國漢〉
한영조던	〈한영〉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編)	〈朝鮮語辭典〉

우리말사전	〈우리말사전〉
조선말큰사전	〈조선말큰사전〉
신소설 : 구마검	〈구마검〉
목단화	〈목단화〉
홍도화	〈홍도화〉
현미경	〈현미경〉
雪中梅	〈雪中梅〉
쌍옥격	〈쌍옥격〉
추월식	〈추월식〉
두견성	〈두견성〉
銀世界	〈銀世界〉
힝낙도	〈힝낙도〉
만인제	〈만인제〉
화중화	〈화중화〉
모란병	〈모란병〉
화세계	〈화세계〉

참 고 문 헌

- 강신항(1967), “현대국어의 가족명칭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집, 성균관대.
 (1972), “「조선관역어」 신석,” 대동문화연구 8집, 성균관대.
 권재선(1975), “여대 친족 및 가족호칭에 대한 고찰,” 한국어문학대계 2, 형
 실출판사.
 김규선(1975), “사회구조 형성의 면에서 본 한국 친족호칭어의 성격연구,” 대
 구교대국어교육논지 3.
 (1976), “국어 친족호칭어 분화에 대한 연구,” 대구교대국어교육논지 4,
 김두현(1969), 「조선가족 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승곤(1984), 「한국어의 기원」, 진대출판부.
 김완진(1973), “국어어휘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진대출판부.
 김종택(1985), “국어 친족어휘의 대립체계,” 소당천시권박사회갑기념 국어학
 논총.
 김종훈(1958), “부녀자의 칭호에 관한 일고,” 문경 6, 중대.

- (1969), “소아어 연구,” 국어국문학 46.
- 김태곤(1971), 「한국무가집 1」, 집문당.
- 김한곤(1983), “한국어 친족어의 의미분석(Ⅱ),” 말 8, 연세대.
- 김형규(1956), “「겨집」에 대하여,” 한글 통원 119 호.
- 남성우(1986), 「15세기 국어의 동의어연구」, 탑출판사.
- 서재극(1968), “계집의 어원고찰,” 이상헌선생회갑기념논문집.
- (1980), 「중세국어의 단어족 연구」, 계명대출판부.
- 서정범(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세아여성연구, 숙대.
- 신정숙(1974), “한국 전통사회 부녀의 호칭어와 존비어,” 국어국문 65, 66 합
병호.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양주동(1954), 「정보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 (1972), “교언연구초,”—항용어들의 어원, 유래, 원의 잡고—, 명지대
논문집 5.
- 여증동(1985), 「한국 가정언어」, 시사문화사.
- 유창돈(1954), “친족 어휘의 어원적 고찰,” 사상제 2권 2호.
- (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이광규(1971), “한국어의 친척명칭,” 교육논총 1집.
- 이기문(1983), “「아자비」와 「아즈미」,” 국어학 12.
- 이승녕(1968), “중세국어의 가족호칭에 대하여,” 동양문화 6, 7집, 영남대.
- 이승명(1983), “친족용어의 의미확장,” 최정여교수회갑기념논문총.
- 이윤표(1985), “국어친척용어의 연구,” 고려대석사논문.
- (1986), “국어친척어의 대조분석,” 한국어문연구창간호, 고려대사대국
어교육학회.
- (1986), “국어친척용어의 연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이희진(1982), “고유어 가족호칭에 대한 연구,” 자하 14, 상명사대.
- 이효재(1971), 「가족과 사회」, 민음사.
- 이익섭(1976), “「아재」고,”—방언 조사 방법의 한 반성—, 동아문화 13, 서
울대.
- 임동권(1980), 「한국민요집」, 집문당.
- 전재호(1973), “「겨집」과 「안해」의 의미변천,” 청계김사엽박사송수기념논문총.
(1980), “의미변천사(Ⅰ),”—친족관계 형제자매 중심—, 어문논총 13,
14 합병호.

- 조항범(1984), “국어유의어의 통시적 고찰,” 국어연구 58.
 (1986), “국어 친족어의 통시적 고찰(Ⅰ),” 동천조건상선생고회기념논총.
 (1987a),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Ⅱ),” 동덕어문논집 제 5집.
 (1987b),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Ⅲ-1),” 계산최세화박사화갑기념 논문집.
- 천소영(1984), “부모 호칭어의 재고,” 국어학 13.
- 최명옥(1982), “친척명칭과 경어법,” 방언 6, 한국정신문화원.
 (1982), “친족명칭의 의미분석과 변이, 그리고 변화에 대하여,” 조규설회갑 기념논총.
- 최재석(1963), “한국인의 친족호칭과 친족조직,” 아세아연구 6권 2호.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최창렬(1985), “우리말 친족어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51, 52.
 (1986), 「우리말 어원연구」, 일지사.
- 최학근(1978), “한국 방언에 나타난 희귀어,” 관악어문연구 3.